

# 상반기 베스트셀러 '소설'이 평정

서울 시내 대형서점들 집계 분석... 실용화한 독서 흐름 보여줘

96년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좀머씨 이야기》(열린책들)였으며, 분야별로 보았을 때 경제·경영·컴퓨터·외국어 등을 포함한 실용서가 종합 순위 50위권 내에 20~30종을 진입시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고전이 예상됐던 소설류가 의외의 상승세를 보인 점과 에세이 등 수필·비소설류와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전년에 비해 급격하게 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교보·영풍·종로·을지 등 서울시내 대형서점들이 발표한 '96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를 분석한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당히 변화된 양상을 보여 관심을 끈다.

## 소설 상승세 매출에서도 뚜렷

작년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권에는 여성저자들의 비소설류가 강세를 보이는데 반해 올 상반기는 4개 대형서점 공히 《좀머씨 이야기》가 1위,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살림)이 2위로 집계돼 소설 두권이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평정했다. 쥐스킨트는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콘트라베이스》와 《향수》도 50위권 안에 진입시켜 그의 열기를 실감케 한다. 이외에도 소설은 홍상화의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문이당),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문학사상), 이문열의 《삼국지》(민음사) 등 각 서점마다 10여종을 50위권 내에 진입시켜 최근 2년간의 불황을 다소 극복하기 시작한 듯 보인다. 교보문고측이 밝힌 전년대비 소설부문 매출상승률은 무려 20.7%로, 소설이 의외의 호황을 누린 것은 매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처럼 소설분야가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최근 2,3년간 극성을 부린 도서대여점이 시장점유율과 독자만족도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상과 수학능력시험의 긍정적인 영향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또 출판사들이 '문학의 해'의 상승작용에 합류하고자 한 문학류들을 애크라타 올림픽 등 독자를 빼앗길 만한 악재를 피해 상반기에 쏟아내면서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 작은 판형에 중저가 전략을 펼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좀머씨 이야기》와 《천년의 사랑》을



상반기 베스트셀러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설의 급상승과 실용서의 꾸준한 성장세로 요약된다.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형 베스트셀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소설부문의 매출액이 늘어난 현상은 출판·서점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컴퓨터·외국어 급성장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 지형도로 보나 매출상승률로 보나 눈에 띄는 급성장을 보인 분야는 역시 실용서들. 예년에 여성저자들이 주축이 된 에세이류가 차지했던 부분을 급격하게 잠식한 이들 실용서의 주류는 유아·주부·컴퓨터·외국어 등이다.

교보문고 집계에 따르면 전년대비 매출상승률이 여성·유아 분야가 33.3%, 컴퓨터가 30.6%, 외국어가 25.4%로 실생활에 응용가능한 실용서들이 초강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디자인 하우스), 《컴퓨터 길라잡이》(정보문화사),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길벗) 등은 4개 대형서점에서 모두 15위권에 들어 실용화된 독자들의 독서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경제·경영·치세·미래 분야도 꾸준해

《빌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도서출판 삼성)은 교보에서 종합 3위, 을지에서 종합 4위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김영사)은 교보 7위, 을지 9위를 기록해 직장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서점에서 기염을 토했다.

반면 해마다 베스트셀러의 상당수를 차지

하던 에세이류는 조안리의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문이당), 전여옥의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푸른숲) 등 2권

만이 4개 대형서점 집계순위 상위 50위권에 공통으로 올라 있어 다소 위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때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정치·경제·연예인들의 성공담을 담은 자기고백류의 책들에 독자들이 식상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4개 대형서점 모두에서 인문·사회분야가 드물고 특히 교양과학 분야는 50위권 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올 상반기 베스트셀러 지형도의 한 특징이다. 유흥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창작과비평),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한길사) 등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문·사회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문장으로 된 논리보다 눈에 보이는 이미지와 실용성에 관심을 갖는 현대인의 독서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허연 기자

## 96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

	교보문고	영풍문고	종로서적	을지서적
1	좀머씨 이야기 (열린책들)	좀머씨 이야기	좀머씨 이야기	좀머씨 이야기
2	천년의 사랑 (살림)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천년의 사랑
3	빌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도서출판 삼성)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4	컴퓨터 길라잡이 (정보문화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남자의 향기	빌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5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문이당)	컴퓨터 길라잡이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
6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디자인 하우스)	남자의 향기 (밝은세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	컴퓨터 길라잡이
7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동아일보)	신사고이론 20 (삶과꿈)
8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길벗)	지식의 백과사전 (열린책들)	컴퓨터 길라잡이	인터넷 무작정 따라하기
9	여성이어 테러리스트가 돼라(푸른숲)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푸른숲)	지식의 백과사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0	뇌내혁명(사람과책)	상실의 시대(문학사상)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남자의 향기